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카타 시장의 후시미 다카시입니다.

4월 7일부터 오사카부에 발령되고 있었던 “긴급사태 선언”이 5월 21일부로 이제야 해제되었습니다.

그간 시민·사업자의 여러분께서는 외출 자숙이나 휴업 요청 등 접촉 8할 삭감에 협력해 주신 것 그리고 의료나 보건 복지 등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밤낮 감염의 리스크와 이웃하는 긴장 상태 속 장기간에 걸쳐 최전선에서 열심히 종사해 주신 것 다시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협력에 의해 우리 시에서의 감염은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형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전의 생활로 곧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바이러스는 일상생활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향후 “장기적인 감염 대책”과 함께 “사회 경제활동의 회복”이라는 2개의 과제를 양립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염려되는 제2파 제3파를 막기 위해 “새로운 생활 양식”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에 정착시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을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의 착용 그리고 3미터를 피해 주시는 등 계속의 감염 예방 대책을 잘 부탁드립니다.

또 사회 경제활동의 재개를 향해 나라나 부의 지원이 닿지 않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있는 시민의 여러분이나 사업자의
여러분에게 지원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시 독자에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의 선언 해제를 받고 공공시설을 순서적으로 재개시키는 것과
동시에 학교의 임시휴업조치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신년도의 학교생활이 보낼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이것도
지금까지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 됩니다. 물론 재개에
있어서는 여러분께 안심하고 이용통학해 주실수 있도록 충분한 감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교육 넘을수있다. 코로나의 앞에」- 시민·사업자·행정, 히라카타시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이 바이러스와의 공생에 도전해 갑시다.

레이와 2년 5월 21일

히라카타 시장 후시미 다카시